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중국



김태성 (호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겸임교수·중국관련서기획 및 번역가)

새로운 인물과 사상, 이젠 속살을 읽어야 할 때

●

최근 침체된 경제사정 탓인지 경제경영이나 처세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고전이나 역사인물 이야기에서 오늘날 사는 삶의 지혜를 구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면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서양이나 일본의 저작물들이 담고 있는 정서와 지혜로는 우리의 현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책들이 대부분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전업 작가들이 원고료를 벌기 위해 손쉽게 써대는 책이라서 출판 과정에서 상당한 가공을 거쳐야만 독자의 구미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다보니 함량미달인 책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책들의 시장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한편 금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중국 대도시 현장보고서》와 왕몽王蒙의 《나는 학생이다》, 《노신魯迅의 마지막 10년》 등 비중 있는 인문서들이 나와 중국 관련 출판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대해 우리가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부터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중 수교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한·중 교류의 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인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소 소모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유일했던 시기마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중국이라는 큰 덩어리의 외피만 바라보고, 그 허술한 인식내용을

회화화했던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의 출판계의 책임은 더없이 막중하다.

이제는 중국의 속살을 읽어낼 수 있는 책들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인상의 기술이 아닌 중국의 실체를 해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책, 중국인의 인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책들이 나와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감상을 적은 유명인사들의 여행기나 추상적인 처세술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중국과 중국인의 실체에 접근하는 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고전이나 역사인물들의 평전류에 있어서도 편중된 중복출판 경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인물과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독자들보다는 전적으로 출판인들의 몫이다. 독자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선도하는 것이 진정한 출판인의 태도인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역대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아직도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인들이다. 예컨대 중국 최초의 사상범인 이치李贽나 광기의 예술가 서위徐渭를 비롯하여 중국의 문학사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당대當代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일반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중국의 실체들이 무수히 많다.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하고 독자들에게 매일 그 밥에 그 나물만 내밀 것인가?

또한 중국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경제사회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온 중국에 대한 이

해에 시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흥미에 영합하여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한 결과로 생겨난 거품과 군더더기를 말끔히 제거하고 이제는 산지식으로서의 중국학이 든든하게 트렌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출판계가 지식전선의 최전방에 서야 할 때이다.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한 책들**

● 정리 | 출판저널 편집부

미국을 능가할 유일한 나라라는 중국.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훈의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이장훈, 삼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집행 관점과 미국의 패권에 맞선 중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내부 대화중국 강경파와 비밀모임인 '블루팀(청팀)'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결국 한반도로 귀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승전을 꿈꾸는 붉은 용과 이미 하늘을 지배하는 푸른 용의 싸움에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국도시 현장보고서》(라오창, 한스미디어)는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중국의 각 도시를 비교분석한 책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 도시의 표준통계 데이터와 전문가 및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 24개 도시의 종합경쟁력 및 각 분야의 경쟁력을 수치화했다. 하지만 이 책의 묘미는 객관적인 통계의 이면에 감추어진 중국 도시의 속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실의 전달보다 각종 통계수치 뒤에 숨겨진 각 도시의 정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 낮은 중국》(라오웨이, 이가서)의 원제는 '중국 저층방담록中國底層訪談錄'이다. 중국 현대사의 밑바닥

을 형성해 온 기층민중의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국의 이면을 보여준 책이다. 2001년 중국에서 출간됐을 당시 '금세기 전대미문의 정신풍경'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원서는 60편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지만 번역서에는 인신매매범, 가라오케 아가씨, 철거민 아주머니, 공중변소 관리인, 인신매매범과 시체 미용사, 늙은 홍위병 등 중국사회의 저층민이나 주변인 16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자본주의의 본격 도입 이후 눈부신 발전 이면의 중국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국을 찾아서 1》(조너선 D 스펜서, 이산)은 명 왕조의 쇠락기에서 천안문 광장의 민주시위에 대한 덩 샤오핑의 유혈 진압까지 4세기에 걸친 거대한 중국 역사 이야기다. 명나라가 소수에 불과한 북쪽 변방의 만주족에게 왜 정복됐는지부터 시작해 1989년의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저자는 중국이 근대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4세기 동안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이 책은 중국사를 중국 안에서만 보지 않고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에도 주목함으로써 중국사를 세계사적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저자의 문체와 35컷의 컬러화보와 200컷의 흑백화보, 51장의 지도 등 역사의 현장과 사실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살림지식총서 중국 세트(전10권)’(살림)는 오늘의 중국인을 만든 사상과 문화를 다룬 책들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최광식) 《중국의 정체성》(강준영) 《중국의 문화코드》(강진석) 《중국사상의 뿌리》(장형근) 《화교》(정성호) 《중국인의 금기》(장범성) 《무협》(문현선) 《중국영화 이야기》(임대근) 《경극》(손철규) 《중국적 사유의 원형》(박정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지식총서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원하는 주제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의 학문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조만간 중국의 역사와 정치, 국제관계 등을 다룬 책들도 나올 예정이다. **출판저널**

